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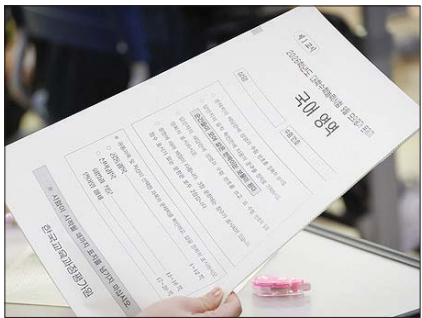
수능일 지하철 운행횟수 늘리고 관공서·기업 출근 10시로 조정

내달 13일 2026학년도 수능
교육부, 전국 1310곳서 실시
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교육부가 수능 당일 교통 혼잡, 소음,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차량 통제, 시험장 안전점검 등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수험생 55만4174명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소음·기상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며 경찰 비상수송 차량도 투입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돼 자가용 이용 수험생은 도보 이동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 듣기평가 시간(13시10분~13시35분)에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

륙을 조정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의 버스·열차는 서행하며 경적을 자제하고, 행사장·공사장 등 생활소음도 최대한 통제된다.

기상 악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및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 체계와 신속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문답지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건강에 유의하며 마음 편히 시험 준비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

서울시-EBS, 연내 영상 서비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손을 맞잡고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EBS와 함께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 시범 제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누리집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는 청각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언어 습득에 제약이 있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기존엔 자막을 지원하는 콘텐츠만 있을 뿐, 수어 영상은 거의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EBS 외에도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의 참여 및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수어 영상 제작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해설 자막은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서울농아인협회는 농인·청인 수어통역사 섭외 지원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EBS 누리집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문해력 향상을 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해력 과정뿐 아니라 수학·영어 등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아세안 13개국 청소년 AI콘텐츠 실력 겨룬다

AI융합교육연구회, AI 콘텐츠 공모전
AI활용 그림그리기·동영상 제작 부문
내달 8일까지 접수, 20일 수상작 발표

AI 시대를 이끌 차세대 주역들이 창의적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초의 국제 청소년 AI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AI융합교육연구회(회장 신승인)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는 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AI로 하나되는 아세안+3, 함께 그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제1회 국제 청소년 AI 콘텐츠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 초·중·고·대학생 및 대



AI융합교육연구회 '제1회 국제 청소년 AI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AI융합교육연구회

학원생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한국 거주 외국인 학생과 유학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 유학생은 본국 국적으로 표기해 출전하게 된다.

공모 분야는 ▲AI 활용 그림그리기 ▲AI 활용 동영상 제작 등 두 부문이다. 그림 부문은 Gemini, ChatGPT, DALL·E3, Midjourney 등을 활용해 창작 이미지를 제작·제출하고, 영상 부문은 Veo3, Flow, Runway, Sora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20초 이내 영상을

영어 자막과 함께 URL로 제출한다.

총 50개 작품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되며, ▲대회장상(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또한 중·고등학교 부문에서는 우수학교상과 지도교사 표창도 함께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구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표준협회, DX교육데이터협회,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 등이 후원한다.

작품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20일, 시상식은 11월 25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11월 8일 국회에서 'AI 리더십 교육 세미나 및 토크 콘서트'도 부대행사로 열린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외국인 관광객에 의료관광 홍보

인천공항 환승라운지에 안내책자 비치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라운지에 영문으로 제작된 의료관광 안내책자를 비치했다.

이번 안내책자는 '메디시티 고양(MEDICITY GOYANG)'을 주제로, 고양특례시의 주요 의료기관과 관광명소, 숙박, 교통 등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상세히 소개하고, QR코드를 통해 의료관광 플랫폼 '다도라 GOYANG'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매년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 환승객 라운지와 관광안내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공항내 홍보물 비치를 통해 '메디시티 고양' 브랜드를 해외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함으로써 도시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메디시티 고양(MEDICITY GOYANG)' 브랜드를 중심으로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의료관광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료·웰니스 산업과 관광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김포시, 25일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

교통카드 기준 200원~400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5일 첫차부터 시내·마을버스 요금조정(인상)을 시행한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김포시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1개 업체가 대상이며, 시내버스 37개 노선, 광역버스 21개 노선, 마을버스 36개 노선과 김

포폭버스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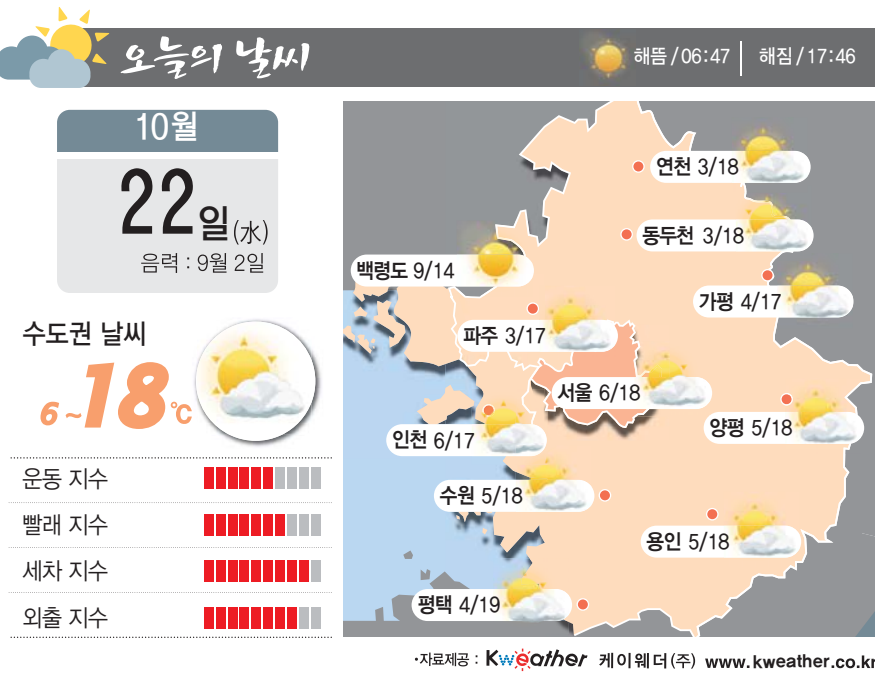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요금금은 시내버스와 김포폭버스가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르고, 광역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또 마을버스는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이용 혼란방지를 위해 요금조정 시행 전·후로 시 홈페이지

지, 버스안내방송, 차량 내부 및 정류소 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운송원가 증가 등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및 원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이 시행된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교통편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내년 초 이른 시기 중국 방문…시진핑 초청”

/사진 뉴시스

▲히토루 통제 강화한 中, 9월 영구자석 대미 수출 29% 줄어

▲EU, 헝가리행 푸틴에 ‘통행금지’ 면제할듯… “전범 오면 안돼” 반발도

▲美교통장관 “스페이스X 개발 뒤쳐져”…아르테미스 계약 재검토 언급

▲“미국, EU ‘러 동결자산 원금 우크라 대출’ 구상에 반대 표명”

▲아슬아슬한 가자 휴전…이스라엘군, 또 “선 넘은 하마스 사살”